숭고한 광주정신 전국이 공감했다

5·18 40주년 기념 뮤지컬 '광주' 올해 공연 막내려
광주 1000 여명 등 지방 순회공연 1만3000명 관람
배우들 열정적 연기 돋보여…내년도 서울 등서 공연

"진실을 진실로 알고 진실되게 행하는 자 진실 속에 영원히"

극의 마지막, 꽃으로 장식한 커다란 액자가 무대 위로 서서히 내려온다. 영정사진을 대신한 글귀는 어떤 외침과 수사보다 강렬하고 숭고하다. 어느 결에 '산자'와 '죽은자' 그리고 진압군이 어우러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오케스트라의 선율 속에 울려 퍼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오늘 우리에게 광주의 '진실'과 그 진실을 향한 여정의 당위성을 묻는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광주'가 11~13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총 54회 공연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며, 올해의 막을 내렸다. 내년에도 서울을 비롯한 지방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뮤지컬 '광주'는 서울 대학로 홍익대아트센터에서 10월 한 달 동안 서울 공연과 고양, 부산, 전주 등 지방순회공연에서 1만3000여 명 관객을 유치했으며 광주 관객 1000여 명 총 1만4000여 관객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작품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라이브(주), 극공장소 마방진과 함께 제작했으며 고선웅 연출, 최우정 작곡, 이성준 음악감독이 참여했다. 여기에 뮤지컬 배우 민우혁, 테이, 서은광(비투비) 등 창작진과 출연진 참여로 화제를 모았다.

공연이 펼쳐진 11일 오후 7시 30분, 시민들과 관객들의 표정에는 첫 광주 공연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QR코드 등록 후 공연을 기다리면서도,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그려낸 '광주'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기대와 궁금증이 어려 있었다.

작품 서막은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편의대'의 모습을 초점화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기존 계엄군 진압에 희생당한 인물들을 다뤄왔던 데 비해 편의대원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나름의 변별성과 5·18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편의대원 박한수가 광주에서 참상을 목도한 이후 내면 변화를 겪는다는 설정은 중요한 모티브이지만, 전체적인 서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녹아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날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부합하지만 좀더 면밀하면서도 사실적인 자료 검토로 개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우들의 연기와 에피소드는 돋보였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대동광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민군에게 김밥을 전달하고, 민중가요를 부르며 도청으로 나가는 장면 등은 당시 장면을 옮겨온 것처럼 감동적이었다.

한편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장면이 좀더 부각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것은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북돋워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 외에도, 진압군과 편의대원 갈등을 서사화 하기 위한 담보장치로써 요구되는 부분이다.

윤만식 한국민족극윤동협회이사장은 "전체적으로 좋은 작품이지만 반복적인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물론 작품임을 감안해도 편의대원의 반성과 고뇌는 현실적인 부분과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150여 분 가까운 서사는 다소 지루한 감도 주었다. 10일간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내려다 보니 압축적이며 임팩트있는 전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기봉 5·18기념재단사무처장은 "배우들을 비롯한 출연진의 땀과 열정이 녹아든 무대였다"며 "모두가 하나되는 대동 광주의 정신이 깃든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밝혔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5·18부상자였던 강혜원 씨는 "그동안 광주의 5월을 힘들게 알려왔던 이들에게 뮤지컬 '광주'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작품이다. 5·18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제작된 뮤지컬 '광주'.

힘겨웠던 한해 국악으로 마무리 하세요

광주시립국악단 송년음악회
15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2020 송년음악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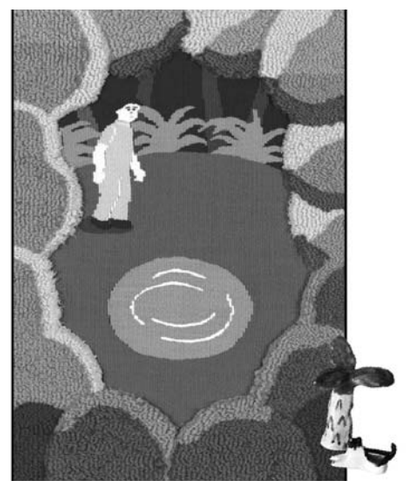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시민들이 마음을 달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국악과 함께 한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매년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연에서는 상임지휘자 한상일이 지휘봉을 잡고 국악스타 송소희(사진)와 가야금 연주자 성애순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소리꾼 남상일과 김산옥이 사회자로 나서 흥겨운 국악한마당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공연은 관현악 버전의 '남도아리랑'으로 막을 연다. 이어 소리꾼 이난초와 소리북 연주자 이태백이 함께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을 들려주며, 가야금연주자 성애순이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를, 소리꾼 남상일이 '장타령'을 선보인다. 광주시립창극단 이은비 단원은 국악가요 '정읍사'를 무대에 올리며, 소리꾼 김산옥은 '상모'를 노래한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국악인 송소희의 무대다. 송소희는 이날 무대에서 '태평가', '오나라', '아리라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은 23일 오후 5시 50분 KBC광주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415-5403./전은재 기자 ej6621@

한땀 한땀 실로 엮은 '타피스트리'

윤연우 작가 개인전
16일까지 금호갤러리



'동굴의 오후'

색실을 짜넣어 그림을 표현하는 직물 공예인 '타피스트리(Tapystry)' 작업을 진행하는 윤연우 작가가 개인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윤 작가는 오는 16일까지 금호갤러리 1관에서 '동굴의 오후'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첫 개인전을 마친 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작업한 타피스트리와 드로잉 작품을 동시에 선보인다.

처음 생긴 작업실에서 외부와 격리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작가에게 작업실이라는 공간은 마치 동굴 같은 곳이자,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전시작들은 작가가 작업실에서 겪었던 일들과 작업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다. 또 동물을 소재로 한 작업 등 기존 작품들도 선보인다.

윤 작가의 타피스트리 작업은 수많은 색감의 실을 짜넣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씨실과 날실의 수 없는 교차가 이뤄지고, 그 실들이 다채로운 구도와 색감으로 엮이면서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낸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아날로그적 감성과 공력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전남대에서 공예를 전공한 윤 작가는 지난해 예술공간 집 추천작가로 선정돼 첫 개인전 '재현의 재현'전을 열었으며 신세계갤러리 '2020,기다렸쥐', 서울미술관 '겨울동물원', 광주일보사 주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1주년 기념전' 등에 참여했으며 지난 6월에는 서울옥션 제로베이스에 출품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기덕 감독 라트비아서 코로나 사망…유족, 대사관에 장례 위임

김기덕(사진)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김 감독이 지난 11일 새벽 라트비아 병원에서 코로나19가 악화해 숨졌다고 발트 지역 언론 델피(Delfi)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내에는 김 감독의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이 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라트비아 현지로 가지 못하고 대사관에 장례를 위임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모두 본상을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파란 대문'(1998)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파노라마 부문 개막작으로 초청받고, '섬'(2000)이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2004년에는 '사마리아'로 베를린영화제 은곰상(감독상)을, '빈집'으로 베네치아영화제 은사자상(감독상)을 받았다.

또 영화 '아리랑'은 2011년 칸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상을 수상했으며, '피에타'는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안겼다.

하지만 그는 2017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됐으며,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대상으로 제기한 무고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지난 11월 항소한 바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재청, 영문잡지 'NRICH' 창간호 발행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외 기관과 우리 연구진들의 성과와 한국의 문화유산 연구사업의 최신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영문잡지 'NRICH'(엔알아이씨에이치) 창간호를 최근 발행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최근 10년 동안 분야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한 연구 사업에 대한 6편의 주요 기사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주제 등을 선별해 총 10편의 성과를 담았다.

주요 기사로는 영산강 유역의 고대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대형옹관의 제작기술 복원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 내용과 5년 간 걸쳐 수행되어온 내용 등도 자세히 소개했다. 문화재연구소는 'NRICH'를 국내의 주한 외국대사관과 문화원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예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붉음이 제 몸을 휜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답으로 칠게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의로움은 B형 - 新 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사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자본세콰이어 신전 강대선

* 7월 발간
김남수 시집 - 둥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정영주 시집